



즉시 사용

비고

* 국무총리 모두말씀은 회의 직후에 별도 배포 되었습니다.

담당

국무조정실
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농림정책과

과장 김신재, 사무관 김동현
(044-200-2231, 2232)

이낙연 국무총리, 전남 영암 종오리 시 확진 관련 방역상황 긴급점검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2일(화) 8시 30분, 세종청사(세종-서울 영상회의)에서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.

* 참석자 : 농림축산식품부·국방부·행안부·환경부 장관, 경찰청차장, 질병관리본부장, 17개 시도 부단체장, 민간전문가 등

○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12월 11일(월) 전남 영암 소재 종오리 농가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 된 직후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됐습니다.

○ 정부는 지난 12월10일(일)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직후 해당 농장과 반경 3km 지역에서 사육중인 전체오리(총 88,000여마리)를 고병원성 확진 전에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전남·전북 등 6개시도의 가금류, 관련 사람, 차량,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(12.11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)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 한 바 있습니다.

-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AI 방역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받고, AI가 발생한 전남 영암과 전북, 강원 등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, 환경부, 국방부,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방역 상황 및 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.